

앗! 브레이크가 없다, 중국 무인차 타보니... 스마트 라이프

2018. 5. 9. 14:27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271574164

캠퍼스를 달리는 미니버스. 내부에는 운전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핸들,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역시 없다. 승객과 좌석만 있을 뿐이다. 스스로 운전하며 알아서 행인을 피해 가는 무인 버스. 상하이 교통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었다.



상하이 교통대학 캠퍼스에 등장한 무인 버스 [출처: 윤형건 교수]



상하이 교통대학 캠퍼스에 등장한 무인 버스 [출처: 윤형건 교수]

5월 8일, 상하이 교통 대학 캠퍼스에서 무인 버스 시험 운행이 진행됐다. 캠퍼스 곳곳 지정된 정류장, 표지판에는 큼직한 QR코드가 달려있다. 위챗 QR코드 스캔으로 호출하면 무인 버스가 승객을 태우러 온다.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은 위챗 사오청쉬(小程序 미니 프로그램)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 무인 버스는 상하이 교통 대학 양밍(杨明) 교수 개발팀과 중국 무인차 업체 칭페이즈닝(青飞智能)의 공동 작품이다. 차량 자율 주행 시스템에는 공간 인식 센서가 탑재돼 차량의 위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안내한다. 시험 운행 단계인 지금은 최고 시속 15km로 달리지만, 정식 운행에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속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류장 표지판에 붙어 있는 QR코드 [출처: 윤형건 교수]

버스 주행 속도가 느리고 탑승감(승차감)이 썩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래 산업의 한 축이 될 무인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

상하이 교통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 무인 버스 시승 체험 [출처: 윤형건 교수]

이번 시험 운행에 참여한 상하이 교통대학 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가 SNS에 남긴 탑승 소감이다.

실제로 중국은 무인차(자율주행차) 분야 선도 국가다. 인터넷 공룡 BAT(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이 무인차 시장 선점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AT 중 가장 먼저 무인차 사업에 뛰어든 회사는 바이두(百度)다. 지난 2015년 '3년 내 상용화, 5년 내 양산'이라는 무인차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무인차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와 손잡고, 무인차의 필수장비 LiDAR(laser radar, 레이저 레이더)를 개발하는 벨로다인 라이다(Veldyne LiDAR)에 1억5000만 달러(약 1660억 원)를 투자했다. 바이두는 오는 7월 진롱커처(金龙客车)와 공동 개발한 중국 최초 상용 무인버스 아폴로(阿波龙 Apollo) 양산을 앞두고 있다.

알리바바는 바이두처럼 무인차를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무인차 사업에 들인 자금과 기술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중론이다. 4월

16일, 중국 매체들은 알리바바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며, 이미 무인차 주행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알리바바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전자동 무인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텐센트는 바이두, 알리바바에 비해 다소 늦은 2017년 11월 무인차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그러나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4월 초 베이징 4환도로에서 자사 무인차 시험 운전을 진행하는 등 무인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두가 진통거처와 공동 개발한 중국 최초 상용 무인버스 Apollo [출처: 신화사]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무인차가 대학 캠퍼스에 등장했다. 상하이 교통대 무인 버스는 교내 학생과 교수가 자체 개발해 캠퍼스 순환 버스에 적용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 다름 아닌 중국인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상하이 교통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 무인 버스 시승 체험 [출처: 윤형건 교수]

차이나랩 홍성현
자료제공 윤형건 상하이교통대 교수

